

## 흡연유희의 개념 개발

장 성 옥<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64.1%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세계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흡연을 추방하려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흡연자 역시 92%가 금연할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은 시도 율에 비해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단증상, 흡연에 대한 습관적 탐닉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Chang & Park, 2001). 흡연과 연관된 연구에서는 담배의 니코틴이 중독을 야기하며 이는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은 마약중독제와 같은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Joan, 1998).

그러나 흡연을 지속하는 데는 니코틴의 약리작용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측면이 아울러 제시되고 있는데, 흡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낮은 자존감과 우울(Flay, 1993), 수줍음(Page, 1989) 등이 연관되고, 또한 금연실패와 부정적 정서, 니코틴의존이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Hall, Munoz, Reus & Sees, 1993), 흡연을 지속하는 행위에는 심리 사회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변수가 서로 연관을 갖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흡연을 지속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연구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금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이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던 개념은 흡연유희이다(Velicer, DiClemente, Rossi & Prochaska, 1990).

개념분석 연구에서 개념을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은 간호 실무에 근거하여 많이 사용되는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다(Schwartz-Barcott & Kim, 1993). 흡연율이 높아 금연운동이 국가적 보건정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에서는 흡연유희는 흡연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흡연유희를 검색어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www.kr.yahoo.com) 용어의 쓰임새를 보면 ‘스스로 흡연의 유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며’, ‘흡연의 유희가 엄습해와’ 같은 표현이 있으며 이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희에 노출되기 쉬운 몇 가지 상황’, ‘흡연을 즐기던 장소와 유희상황을 피한다’ 같은 표현에서는 상황 맥락 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어 통용되는 개념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간호학 연구논문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은 금연에 대한 의지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자신의 의지로 흡연유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Kim, 2002). 그러나 흡연유희의 개념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가 간호 계뿐만 아니라 보건계 등 타 분야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문헌에서는 Velicer, DiClemente, Rossi와 Prochaska(1990)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이와 반대 되는 속성으로 흡연유희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흡연

#### 주요어 : 흡연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E00172)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투고일: 2003년 9월 25일 심사완료일: 2004년 2월 11일

을 유도하는 위험 상황에서 얼마나 대상자들이 흡연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는 흡연 충동을 일으키는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내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흡연유혹의 쓰임새보다도 좁은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흡연유혹을 주제로 한 연구는 Chang과 Park(2001)이 Velicer, DiClemente, Rossi와 Prochaska(1990)가 개발한 흡연유혹 도구를 이용하여 중년남성의 금연단계에 따른 흡연유혹과 금연단계와의 관계, 니코틴 의존도와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유일한 연구이다.

최근 건강증진 연구 분야에서 금연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연구가 중요한 연구 분야로 제시되고 있으나 금연 중재에서 중재를 필요로 하는 변수인 흡연유혹에 대한 정의 구축 및 본질적 측면에 대한 개념분석 작업은 실효성 있는 중재프로그램연구의 선행 작업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흡연자의 흡연유혹 중재를 위한 실증적 연구에 선행하는 서술적 연구로 흡연유혹의 개념적 정의 및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개발 연구이다. 혼종모형에서는 이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개념을 확인, 분석, 세련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문헌뿐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간호학과 같은 응용과학 분야에서 특히 적합하다.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개발방법은 추상성이 높고 현장 적용에 모호함을 보이는 개념의 개발을 위해서 이론적 분석 작업과 더불어 현장작업 단계에서의 분석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간호학적 관점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Schwartz-Barcott & Kim, 1993).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은 Wilson의 기반에 기본을 둔 개념분석방법으로, 현장작업 없이 기존의 문헌에서의 개념의 쓰임새, 정의를 설명하여, 속성을 구분하고, 정의를 내리며 속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상 사례를 선정하여 개념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접근 (Walker & Avant, 1995)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연구 개념인 흡연유혹은 다루어진 문헌자체가 많지 않은 반면,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에서 의사소통되는 개념으로 현장작업을 병행하여 간호학적 관점에서 개념을 명료히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혼종모형을 통한 개념개발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론적 단계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흡연유혹의 속성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관련개념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현장단계에서는 흡연유혹을 설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이론적 단계에서 나타난 흡연유혹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흡연유혹이 발생되었는지, 흡연유혹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분석하고 최종분석 단계에서 이론적 단계의 문헌분석 자료와 현장단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흡연유혹의 속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흡연유혹 개념을 정의하였다.

## 이론적 단계

흡연유혹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심을 두고 흡연유혹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국어와 영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흡연유혹을 주제로 국내 간호 및 보건 관련 분야의 논문을 찾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센터 (www.richis.org)의 1970년부터 2002년 동안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 정보검색기능을 검색하여 1편의 흡연유혹을 주요어로 한 연구를 검색하였다. 외국의 문헌에서는 PubMed에서 Smoking Temptation을 주제로 하여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검색하여 20편을 검색하였다. 그러나 관련 논문이 적으면서, 흡연유혹의 개념적 특성을 담은 연구가 적었다. 관련문헌이 적을 경우 할 수 있는 작업으로 흡연유혹과 관련된 개념 중 특히 흡연유혹의 사전적 의미에서 제시된 어구를 중심으로 검색된 논문을 고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Kim, H.S., personal communication, July, 2002). 이론적 단계에서 개념적 특성 도출을 위해 참고한 학술 문헌은 흡연유혹 10편, 열망 7편, 탐닉 6편, 니코틴 의존 15편, 물질남용 3편, 재흡연 18편이었다. 이론적 단계에서는 현장작업 단계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흡연유혹의 정의 및 관련개념간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흡연유혹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각 문헌에서의 의미에 대한 공유된 동의 정도나 간주관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 ● 흡연유혹의 정의 및 관련개념과의 관계

흡연유혹 개념의 정의 및 관련개념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적 정의와 개발된 측정 도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사전적 정의에서 흡연유혹은 흡연과 유혹의 복합 단어로 '흡연유혹'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국문과 영문 사전에서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흡연과 유혹을 나누어서 탐색하여 흡연유혹의 사전적 정의를 통합하였다. 흡연은 담배를 피움(Lee, 1999)으로 정의되며, 유혹은 남을 피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함(Lee, 1999)으로 정의되어 진다. 또한 다른 사전에는 유혹은 피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National Korean Research Institute, 1999)으로 정의되어 피이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영문 사전에서 temptation은 "a strong desire to have or do something

even though you know you should not(Summer, 1995)”으로 정의되어 있어, 영문 사전에서의 외부에서의 피임 보다는 내부에서 갖는 강한 열망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흡연유혹을 측정한 도구의 분석에서 처음 흡연유혹을 측정한 도구는 Velicer, DiClemente, Rossi, 와 Prochaska(1990)가 금연을 할 수 있다는 자아효능감의 반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데, 즉 긍정적 상황에서의 흡연유혹, 부정적 상황에서의 흡연유혹, 그리고 습관적 흡연에 대한 열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흡연하기 쉬운 위험상황을 설정하고 흡연하고 싶은 것과 개인이 흡연과 연관되어 형성한 습관에 근거한 흡연열망을 평가하는 것으로 흡연유혹은 대상자의 상황적 특성과 습관성 열망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흡연유혹과 더불어 제시되는 열망, 습관성, 탐닉은 관련개념이라기 보다는 흡연유혹을 구성하고 있는 하부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습관성은 영문사전에서는 “done as a habit or doing something from habit” 으로 정의되어 흡연유혹이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지는 행동양상을 포함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었다. 또한 열망(Craving)은 급성 금단증상을 경험하는 아편환자의 아편을 하고자하는 강하고 거의 압도적인 욕구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으며 담배 금단증상의 한 지표로 사용되고, 신체적 의존, 또는 병리적 바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제시된 바 있다(Kouimtsidis, 2000). 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참조하면, 영문사전에서 craving은 “an extremely strong desire for something”, 그리고 desire는 “want or hope for something very much” 로 정의되어 있어(Summer, 1995), 하고자 하는 압도적인 욕구를 의미하되, 순간적인 강한 욕구를 묘사하였다. 이에 반해 탐닉은 국문사전에서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짐,’ 반복사용으로 의존성이 생겨 신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나타나고 이에 반해 정신적 의존은 ‘습관성이라 함’ (National Korean Research Institute, 1999)으로 정의되고 있고, 영문사전에서는 addiction은 “the need to have something regularly”로 정의되어 흡연유혹은 흡연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포함하며 빠지기 쉬운 위험상황이 있고, 흡연행위가 습관적 행동으로 굳어지도록 하고 정신적 의존을 함축하며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열망을 포함하는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 ● 인지적 경험으로서의 의미

Sayette 등(2000)은 열망이라는 것은 어떤 열망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상자의 경험으로 간주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흡연유혹의 한 요인인 열망은 그 자체가 인지적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동기를 구성할 수 있는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물질이 인지

적 경험에 미치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효과가 일어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Kouimtsidis(2000)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비흡연자는 흡연과 연관된 부정적인 경험을 주로 표현하는 반면에,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과 연관된 긍정적 경험을 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흡연을 원하게 되는 인지적 기전 형성에 흡연과 연관된 긍정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Fallon(1998)은 어떤 기전이 흡연자에게 흡연을 지속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흡연과 관련하여 인지적 측면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흡연자는 흡연경험에서 얻어지는 흡연의 보상적 효과로 인해 흡연을 지속한다고 표현하였고, 이러한 기억과 인식의 결합으로 형성된 자동적인 기전이 흡연을 지속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흡연유혹은 흡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형성된 기억, 사고와 같은 인지적 경험의 결과로 흡연을 원하게 되는 현상으로 제시되어 진다.

#### ● 조건화된 자극의 반응으로서의 의미

Velicer, DiClemente, Rossi와 Prochaska.(1990)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측정할 때 흡연자가 20가지의 상황에서 흡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때 흡연유혹은 자아효능감의 반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 Meyer(2000)는 물질에 대한 열망에서의 점화 효과를 제시하였는데, 즉 과거 흡연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사용했을 때 관련된 환경적 자극이 그 이후로 흡연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열망의 정도를 사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면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Carter와 Tiffany(1999)는 물질에 대한 열망은 이전 물질사용과 연관되는 환경에서 더 빨리 물질을 사용하게 되거나 열망행위가 재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구체적 단서 즉 물질을 사용하는 상황에 노출된 대상자는 관련된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Bliss, Garvey와 Heinold(1989)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도 재흡연 위기를 흡연유혹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 상황으로 정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Lindell과 Reinke(1999)은 흡연자들은 자신들의 흡연습관과 자극들을 연관시키는데, 담배를 중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극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흡연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극들은 커피, 음주, 식사완료, 쉬는 시간, 흡연을 함께 한 친구들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흡연유혹은 흡연과 연관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조건에 대해서 개인이 경험하는 반응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어진다.

● 생물학적 반응으로서의 의미

생물학적 관점에서 흡연유혹은 유혹의 한 부분으로써 흡연에 대한 열망에 대한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경생물학적 이론들은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생물학적 관점에서 흡연에 대한 열망이 어떤 기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욕구와 열망을 특정한 정신작용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얻기 위한 노력이 방해받을 때 활성화되는 반응으로서 개념화하고 있다(Toneatto, 1999). Joan(1998)의 보고에서는 만성적인 니코틴 노출로부터 갑작스런 중단은 코카인, 마약을 중단한 후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작용을 이끌어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갑작스런 니코틴 중단으로 초래되는 생물학적인 반응 특성은 금단증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증상에는 담배에 대한 열망, 불안, 식욕증가, 흥분, 수면곤란, 어지러움 증, 따끔거림, 입안쾌양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West, Hajek와 Belcher(1989)는 금단증상의 예측정도는 흡연에 대상자가 얼마나 의존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금연은 갑작스런 니코틴 중단으로 금단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흡연에 대한 열망은 또한 주기성을 갖는 탐닉과 연관이 되는 데 Gilberto와 Zaimovic(2002)은 쾌락과 연관된 물질남용과 동반되는 행동적 특성들 중, 탐닉하는 물질의 지속효과에 대한 빠른 감소, 즉 내성이 초래되어 사용하는 물질이 부족해졌을 때 통제감 상실과 충동적 행동반응이 초래된다고 제시하였다. 즉 흡연에 있어서는 니코틴의 약리작용으로 인해 생물학적인 갈망이 초래되고 이러한 갈망은 니코틴이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강한 중독성을 지닌 물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AHCPR(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 Research)는 임신 중, 심근경색 후,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 시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Ashp Report, 1999). 이를 종합하면 흡연유혹은 니코틴 영향으로 초래되는 생물학적 반응으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론적 단계에서의 흡연유혹의 속성, 차원, 지표 및 잠정적 정의

개념의 속성은 개념의 의미, 질 그리고 특성으로 이들을 종합하면 개념의 정의가 된다. 속성은 겉으로 관찰가능한 면과 관찰이 가능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특성을 지표라고 하고, 지표는 도구를 개발할 때 개념이 드러나 표현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혼종모형에서 개념의 차원은 개념의 특성 즉 속성이 나타나는 맥락에 따라 구분되어질 수 있다(Kim, H.S. personal communication, July, 1998).

이론적 단계에서의 문헌분석을 통한 흡연유혹의 속성은 1) 심리적으로 흡연하고 싶은 끌리는 열망, 2)일회성이 아닌 주

기적으로 발생하는 욕구, 3)의지에 반하더라도 흡연하게 되는 열망, 4)개인이 형성한 상황적 특성과 습관적 열망에 근거해서 점화, 5)기억과 인지의 결합으로 형성된 자동화된 인지적 도식, 6)니코틴 중단으로 초래되는 신체적 반응, 7)흡연에 신체적/심리적 의존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음으로 확인 하였다. 차원은 흡연유혹의 속성이 일어나는 맥락으로 1)인지적 경험으로서의 차원, 2)조건화된 자극 반응으로서의 차원, 3)생물학적 반응으로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유혹을 외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자발적이다, 2)조건화된 유인이 있다, 3) 흡연과 연관된 긍정적 기대감을 갖는다 의 세가지지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흡연유혹의 잠정적 정의는“ 흡연유혹은 니코틴 중단으로 초래되는 신체적 반응으로 의지에 반하더라도 흡연하고 싶은 끌리는 열망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욕구이다. 또한 개인이 형성한 상황적 특성과 습관적 열망에 의해서 발생되고 흡연경험과 연관된 인지적 과정의 결과이며 흡연에 신체적/심리적 의존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였다.

### 현장작업단계

현장작업단계에서 분석을 위한 자료로 3-6인으로부터 7-8회의 면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Schwartz-Barcott & Kim, 1993)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흡연유혹개념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흡연자 5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혼종모형에서는 사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의 본질적 특성과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현장에서 개념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어 있다(Schwartz-Barcott & Kim, 1993). 흡연유혹의 경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유혹에 관한 경험 자체를 진술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흡연유혹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흡연자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흡연유혹의 속성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속성이 드러나는 맥락 즉 차원을 분석하였다. 현장의 선정은 관찰이 가능한 곳, 그 상황에서 연구자가 참여관찰 및 면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제시되고 있다(Schwartz-Barcott & Kim, 1993).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흡연하면서 흡연경험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에서 고려하였다. 따라서 대상자 5인 중 2인은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로 하여 연구자가 대상자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고, 3인은 연구자가 자주 접할 수 있고 자신의 흡연 경험에 대해 오랜 시간 면담을 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면담은 흡연자의 흡연의도에 따른 흡연상황, 흡연이 자신에

게 갖는 의미, 흡연을 하고 싶은 이유, 금단증상과의 관계, 흡연습관, 흡연이 습관화 하게 된 과정, 금연의 어려운 점, 금연하기 어려운 상황 등 문헌고찰에서 확인된 속성을 진술할 수 있는 영역중심으로 면담하였다. 면담은 1회 면담이 1-2시간으로 하여 개인에 따라 3회에서 7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chatzman과 Strauss(1973)가 제안한대로 현장기록 노트의 코드와 이론적 기록에서 주요영역을 찾아내어 표시함으로써 개념의 의미 범주, 속성과 지표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분석 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각 사례에서 나타난 흡연유혹의 차원, 속성, 지표 그리고 흡연유혹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써의 하부개념을 각각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여 확인하였다. 지면의 제약 상 본문에서는 속성, 차원을 잘 드러내주는 관련되는 인용구를 중심으로 사례경험을 기술하였다.

#### ● 사례 진술

##### ● 사례 1

사례 1은 40세의 자영업자로 군대에서 흡연을 배운 후 몇 번의 금연을 거쳐 20년간 흡연을 해온 남성이었다. 사례1의 경우에 흡연유혹의 특성은 일상화된 생활 속에서의 습관화와 연관이 되며 흡연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흡연을 하게 되는 특성이 강조되었다. 의미 있는 진술로는“사실상 저는 특별히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봐요.”, “나 같은 경우에는 심심해서 하게 되요. 담배는 일종의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니코틴 의존차원).”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잘 피우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 하고 얘기할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피워 물고 있어요(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 차원).”, “무엇인가 안하면 심심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다가 쉬고 싶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쨌든 쉬잖어. 그러니까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곤 하지요”, “담배연기가 타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타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힘든 현실에서 거리두기 차원).”, “저의 경우에는 습관에 담배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시간 간격으로 피우는 사람은 그 간격이 되면 담배를 피우게 습관화 된 거예요(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욕구)(일상화된 습관적 열망 차원).”, “그러다가 몇 시간 못 피우게 되면 피울 때는 몇 대를 연달아 피우게 되는 거예요.”

“담배로 인해 건강이 문제가 되면 그게 끊게 되는 것이지. 특별히 끊을 이유를 못 찾을 거예요(통제력 부족 차원).”, “담배 편다고 다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금연하면 보통 3개월 끊게 되는 데, 다시 담배를 보고 그 때 그 기분, 흡연하던 기분을 느끼게 되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요(심리적으로 흡연하고 싶은 열망). 그래서 개인마다 금연방법이 다른 거요(개인에 따른 다양한 유인).”

사례 1에 있어서 흡연유혹과 연관된 지표로는 자신이 원해서 하게 되는 자발성, 타인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보면 피우는 조건화된 유인이 있다는 것과, 거의 1시간 간격으로 피우게 되는 주기성 그리고 흡연을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 ● 사례 2

사례 2는 50세의 전문직 종사자로 15세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35년간 별 금연기간 없이 흡연해오고 있었으며, 그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를 거의 피워오고 있었다. 담배는 한 대 피울 기회가 생길 때마다 피운다고 하였으며 주로 직업과 연관된 스트레스관리에서 담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잠시 금연할 때는 계속 군것질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 금연 시 금단증상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사례2의 경우에 특히 강조된 것은 흡연과 스트레스관리 측면이었는데 흡연하고 싶은 유혹은 힘든 현실에서 잠시 물러나 상황을 유보시키는 의미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의미 있는 진술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줘요. 초초할 때 일이 잘 풀려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은 월급쟁이가 담배를 끊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힘든 현실에서 거리두기 차원).”, “담배를 피우면 머리를 어느 정도 맑게 해주고 생각을 정리해 주니까 주로 하게 되고, 담배를 피워 물면 대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무언인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어려울 때마다 피우게 됩니다(흡연과 연계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인지적 경험으로 습관화).”, “금단증상이 있지요. 제 경우에는 금연하면 혀끝에서 담배 맛을 느끼고 그리고 목이 마르게 되고 초초해 집니다(니코틴 의존 차원). 그런데, 금단증상을 없애는 패취 같은 것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담배를 피우므로 얻게 되는 기대감이 더 중요한 것(개인적인 흡연에 대한 기대감) 같습니다”, “특히 화장실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담배피울 짬이 나도 담배를 피우게 되고요(일상화된 습관적 열망 차원).”, “3일까지는 끊어보았지요. 끊을 것 같다가도 못 끊겠더라고요. 어떻게 끊어야 될지, 자식 놔둔 애빠한테서 냄새난다고 그러는데 그 구박을 받으면서도 못 끊고 있습니다”(통제력 부족 차원). “끊었다가도 누군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냄새가 사람 미치게 만 들고. 그럼 또 달라고 하고 같이 피우고 했어요(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근거해서 점화)(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 차원).”

사례 2에 있어서 흡연유혹과 연관된 지표로는 틈만 나면 스스로 피우는 자발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우게 되는 유인이 있다는 것과, 일정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흡연하는 주기성, 아침에 화장실, 식후 담배와 같은 일상화 그리고 흡연을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 사례 3

사례3은 흡연경험 4년의 27세의 대학생으로 담배가 술보다 특히 다른 점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한 개 피만 피워도 자꾸 생각나고 보통 한 시간 간격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시간을 넘기면 자꾸 생각나고 초조해지고 자신은 설사 폐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안 피울 자신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담배가 땡겨요. 이거는 커피를 마시는 것과는 달라요.”

“오랫동안 안 피우다가 가령 한나절 안 피우다가 피우면 기분 좋지요.”

“금단증상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피우지 않으면 초조해지는 것을 느끼죠.(니코틴 의존 차원), “저는 아파도 피우는데, 피우면 기분이 좋고, 제어가 안돼서 피우게 되요(통제력 부족 차원), “매일 안 피우려고 하는데(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담배에 대한 혐오를 느껴볼라고 켈트병에 담배꽂초를 모으면 그 병 열 때 냄새가 끝내주게 나빠요. 그런데도 그 켈트병 다 차도록 피우게 되고(의지에 반하더라도 흡연하게 하는 열망), “저는 일정한 간격으로 피워야 해요. 밥 먹고 나서 화장실가서 그렇게 피우게 되요.”

“저는 배고플 때도 가끔 음식삼아 피우게 되요(일상화된 습관적 열망 차원).”

“피울 때마다 이게 끝이다. 끝이다 하는 데 잘 안되고 한 시간 지나면 안 피우면 초조해지고 시간이 잘 안 가고”

사례 3에 있어서 흡연유혹과 연관된 지표로 두드러진 것은 피우지 않으면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 찾게 되는 자발성, 일정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흡연하는 주기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흡연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상화가 확인되었다.

• 사례 4

사례 4는 흡연경험 6년인 28세의 대학생으로 면담 당시 만성간염을 앓고 있고 퇴원 후 요양 중인데, 특히 누군가와 담배는 같이 피우면 훨씬 좋고, 자신에게 있어 담배와 연관된 금단증상은 담배를 못 피우면 계속 잠을 자게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니코틴 의존 차원). 사례 4는 담배가 갖는 사회성, 대인 관계적 특징을 주로 강조하였는데, 특히 대인 관계적으로 흡연과 연관된 여건이 주어지면 강하게 흡연유혹을 느끼게 됨을 강조하였다.

“저는 간염 때문에 입원한 동안에는 끊었다가 퇴원해서 남들 피는 것 보면 피우고 싶고, 텔레비에서 담배 피우는 것 나오면 피우고 싶고 그래서 피워요(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

차원).”, “병원에서 끊었을 때 금단증상을 느껴보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느껴지는 것은 없어요.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저는 아프면 안 피워요. 일단 맛이 달라지니까. 담배도 맛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필 때도 맛을 생각하니까 담배를 피우면 몸 상태에 따라 맛이 달라지니까(개인에 따라 다양한 흡연유혹 발생이유)”, “저는 아침에 안 피워요, 깨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우면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그렇지만 화장실에서 피우게 되요(일상화된 습관적 열망 차원)”, “대부분의 흡연시작이 고등학교 때 주로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담배피우는 것은 나름대로 용인이 되거든요. 담배를 피우면서 볼 일보면 다 좋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제가 화장실에서 담배 안 피우면서 담배 피우듯이 숨을 쉬어 봤는데 담배피울 때 그 기분이 아니더라고요(개인이 형성한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근거해서 점화).”, “술 때 담배 피지요. 군대에서 힘들 때 쉬고 싶으면 담배 피게 되는 데, 그게 군대에서는 용인되거든요. 담배 피우면서 쉬는”(힘든 현실에서 거리두기 차원). “군에서도 혼자 안 피우기 뭐하니까 같이 피울려고 피우게 되고, 담배는 남자들 끼리 뭉치게 해주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는 담배 피우면 쉬는 것으로 서로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쉬고 싶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와서도 쉬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흡연을 허용하는 상황이 흡연유혹상황으로 전이).”, “저는 대학 다니면서 피웠는데, 수업시간 막간에 피우다 보니까 그게 버릇 되서 한번 피우고 한 시간 이전에는 잘 못 피워요. 1시간이 지나야 피우게 되고(개인적 흡연습관에 근거한 주기성)”, “저희 아버지는 담배 끊은 지 10년 되었는데, 저는 저의 아버지가 대단하시다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끊기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끊은 거예요. 저는 간이 안 좋으니까 술은 끊지만 담배는 안 끊는데, 제가 만약 천식이 있으면 아마도 담배를 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프거나 하기 전에는 끊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통제력 부족 차원).”

사례 4에 있어서 흡연유혹과 연관된 행위적 지표로는 자발성, 남이 흡연하는 것을 보면 피우게 되는 조건화된 유인, 일정 시간간격으로 흡연하는 주기성, 식사 후, 화장실에서 피우게 되는 일상화, 담배를 피우면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다는 흡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 사례 5

사례 5는 흡연 경험 6년인 30세의 대학생으로 자신은 1시간 간격이 아니라 “식후 땡, 모닝 담배 하는 식으로 때가 되면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으며 역시 매일 끊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5는 흡연의 대인 관계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였으며 그

러한 흡연을 통한 대인 관계적 만남이 사회생활에서 습관화되어가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사례 5는 금연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인들이 흡연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표현을 보면,

“끊는다고 하면 오! 그래? 하고 담배연기를 저에게 내뿜고 끼이고 그래요. 담배는 확실히 같이 피우면 좀더 좋거든요. 아마 피우기 시작하는 것도 다 피우는데 혼자 안 피우고 있게 되면 한번 줘보지 그래 하고 피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바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좀 해야 할 때, 화가 났을 때나 그때 담배를 피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많이 피게 되거든요.”

“스트레스 있을 때 담배 피우는데, 담배피우면서 연기를 뿜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나쁜 내 감정이 밖으로 나가서 연기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하는 것(흡연과 연계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인지적 경험으로 습관화)”

“공부할 때도 좀 쉬어야 하니까 담배를 가지고 나가고, 담배 피우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구 쉬게 되니까(힘든 현실에서 거리두기 차원)”

“담배피우면서 기분 좋은 것은 남들과 얘기 할 때, 특히 문제가 있었을 때 담배 피우면서 기분 좋게 얘기하면 화해 할 때도 서로 불 당겨주고, 그러면서 화해하고 그래요(사회적 관계 촉진 기회 허용).”

“술자리에서는 술 마시면서 자연스레 담배가 손이 가지요. 술 마시면서 피우는 게 습관이라기보다 술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우게 된다고 생각해요(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차원). 술은 마시면 취하니까 자기 주량도 있고, 그러지만 담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주량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저는 지금도 진짜 끊어야지 하면 끊어요. 군에서 한 1년 반 동안 끊었었어요. 저 보구 독한 놈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담배 끊으면 나타나는 별다른 금단증상 같은 것은 없어요. 끊었다가 다시 피울 때도 어지러운 것도 없었구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게 좋고, 담배 끊는 것이 잘 안되요(니코틴 의존 차원).”, “몸에 밴 담배와 연관된 습관만 떨칠 수 있다면”, “담배를 피우면서도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고 늘상 생각을 했었어요(통제력 부족 차원).”

“흡연은 시작하는 때부터 3-5년 사이에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멋으로 많이 피우다가 그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나중에 내가 왜 담배를 왜 피지? 에 스스로 답을 못할 정도로 일상에서 습관화되고 중독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일상화된 습관적 열망 차원).”

사례 5에 있어서 흡연유혹과 연관된 지표로는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피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자발성, 술 마실 때 친구와 대화할 때 흡연하게 되는 조건화된 유인, 식사 후, 화장실에서 피우게 되는 일상화,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흡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확인 되었다.

사례에서 확인된 흡연유혹의 하부개념

5인의 사례에서 흡연유혹의 요소로 확인된 하부개념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 최종 분석단계

최종분석 단계에서 문헌분석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흡연유혹의 속성을 규명하였으며, 흡연유혹 개념을 재정의 하였으며 간호학에 적용 가능한 흡연유혹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유형을 식별하였으며 차원을 도출하였다.

### ● 흡연유혹의 속성 및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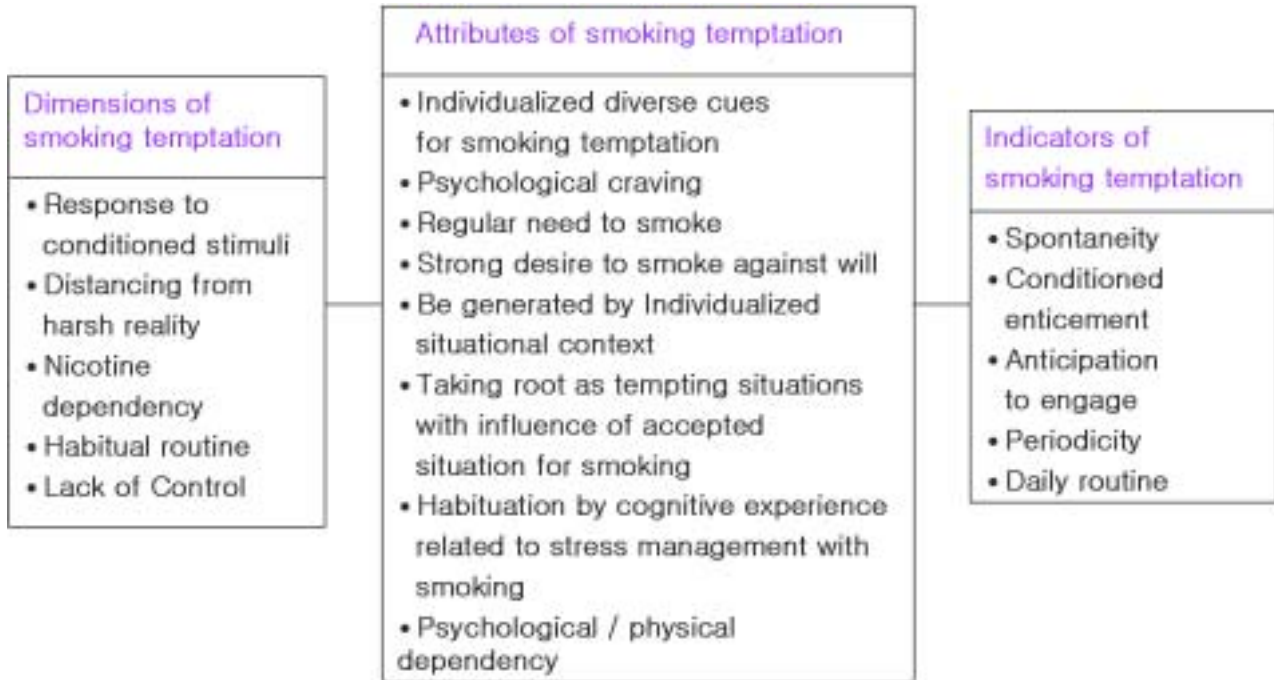
흡연유혹의 속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문헌분석 결과와 현장조사를 대조하면서 재분석하였다. 흡연유혹의 지표로 최종분석에서 도출된 것은 1)자발성 2)조건화된 유인, 3)흡연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5) 주기성, 6)일상화였다. 문헌분석에서 확인된 속성 및 지표는 현장조사에서 좀더 구체화된 속성으로 드러났고 새롭게 확인된 속성도 확인되었다. 또 문헌에서 확인된 속성 및 지표는 대부분 현장조사에서 지지되었다. 최종 분석된 속성 및 지표, 차원간의 관계는 <Figure 1>과 같이 정리되었다.

### ● 흡연유혹의 차원

혼종모형에서의 개념분석이 개념의 주관적 의미와 측정에

<Table 1> The identified sub- concepts of smoking temptation in each case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raving for smoking	O	O	O	O	O
risky situations for smoking	O	O	O	O	O
habituation	O	O	O	O	O
psychological dependence	O	O	O	O	O
physical dependence		O	O		
addiction	O	O	O	O	O



〈Figure 1〉 Dimensions, attributes and indicators of smoking temptation

둔다고 함을 고려하여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단계의 분석에 근거해서 흡연유혹의 차원을 도출하였다.

흡연유혹의 속성이 일어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차원에 해당하는 것을 이론적 단계의 문헌분석 결과와 현장작업 결과를 대조하면서 재분석하였다.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의미 차원은 인지적 경험으로부터의 기대감의 의미, 생물학적 반응으로서의 의미, 조건화된 자극의 반응으로서의 의미였는데 이는 현장작업을 통하여 내용적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최종분석에서는 현장에서 대상자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차원으로 분석하여 5개의 흡연유혹차원 즉 1) 조건화된 상황이 원인이 되어 흡연을 하고픈 욕구를 갖게 되는 차원으로 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 차원 2) 힘겹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현실을 잊고 싶을 때 흡연을 통해서 도피하고 싶은 차원인 힘든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는 차원 3)니코틴의 효과로 흡연을 지속하고 탐닉하게 되는 차원인 니코틴 의존 차원, 4)흡연이 생활에서 이미 습관화 되어 흡연에 대한 습관적 열망에 의해서 흡연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일상화된 습관 차원, 5)담배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줄이지 못하는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담배에 대한 통제력 부족 차원을 도출하였다

#### ● 흡연유혹 유형

흡연유혹의 유형은 흡연유혹을 강하게 지각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 분류했을 때 크게 유형을 구분하는 특성은 흡연을 하면 얻게 될 것이라 믿는 기대감이었고, 이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두개의 큰 축으로 구분하면 금단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이 되었다. 이를 통한 대상자의 개별적인 흡연경험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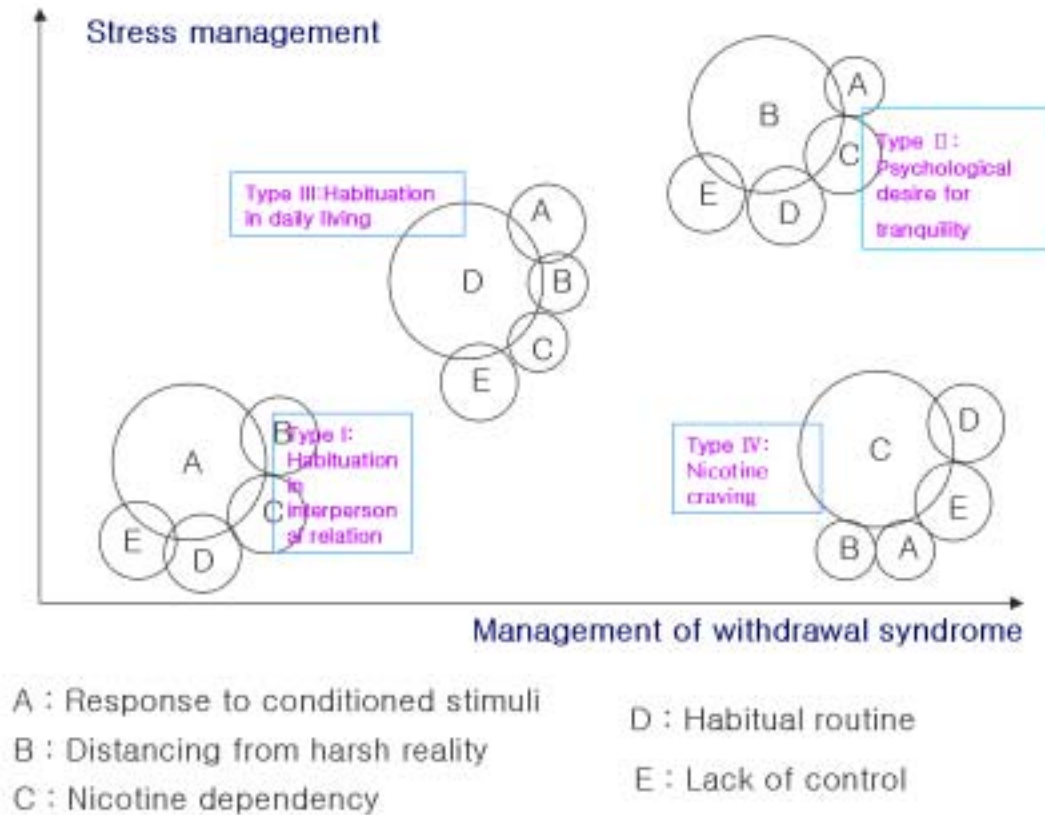
유형 I(대인관계에서의 습관화 유형)은 누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흡연하고 싶고 모임에서 으레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유형으로 이때 흡연유혹은 대인관계에서 윤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이며 또한 흡연행위가 사회적 행위와 결합하여 습관화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주로 대인관계와 연관지어서 흡연유혹을 느끼는 유형으로 흡연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와 금단증상 관리의 매우 약한 유형이었다. 이 유형은 사례 4, 사례5의 상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저는 금단 증상은 잘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담배피우자고 하면 담배피우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친구랑 화해할 때 담배를 같이 피워요. 서로 불 당겨주고 그러다보면 화해가 되고“

“술자리에서는 술 마시면서 자연스레 담배가 손이 가지요. 술 때문에 피우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우게 되는 거예요. 혼자 술 마실 때는 안 피우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요즘은 간이 많 좋으니까 술 대신 물마시면서 피우고 그래요.“

유형 II(심리적 안정추구 유형)는 흡연을 통해서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흡연은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방편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여유를 추구하는 유





〈Figure 2〉 Type of smoking temptation according to anticipation to engage in smoking

형으로 볼 수 있으며, 흡연에 대한 의존이 심하여 흡연을 하지 않으면 금단증상이 동반하여 금단증상 관리도 같이 흡연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유형으로 사례2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흡연유혹유형이다.

“저는 금단증상이 있지만 주로 담배를 피울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이 그리워져서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되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 원할 때 담배가 그리워집니다.”

유형 III(일상생활에서의 습관화 유형)은 일상생활과 연관해서 담배가 습관화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어느새 크게 의식하지 않고 담배를 물고 있게 되는, 일상사의 모든 사건이 자동적으로 흡연습관과 연계된 경우이다. 사례1의 진술내용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금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습관이에요. 어떨 때는 자기가 피우는지도 모르게 내가 피우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우고, 화장실 가서 피우고.....”

유형IV(니코틴 열망 유형)는 니코틴 열망을 강하게 느끼는 유형으로 담배를 안 피우면 입이 심심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금단증상이 심한 유형으로 사례3의 진술에서 잘 표현되는 유형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경험하는 것, 초초해지고 그런 것이 금단증상인 것 같습니다. 한나절만 안 피워도

초초해지고 그다음 피울 때는 너무 좋고...”.

유형과 차원과의 관계는 <Figure 2>와 같이 정리되었다.

그림 2를 보면 대상자의 흡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대감 면에서 x축을 금단증상 관리 측면으로 놓고 y축을 스트레스 관리측면으로 놓았을 때, 유형 I은 대인 관계적 친교, 술자리와 같은 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써의 흡연유혹 차원이 크면서, 스트레스관리나 금단증상관리를 위해서 흡연하는 측면이 적은 반면 유형 II의 경우는 힘든 현실로부터의 거리두기가 흡연유혹이 일어나는 가장 큰 차원이며 스트레스 관리와 금단증상 관리를 위해서 흡연을 하는 측면이 크다. 유형 III은 일상에서 습관성이 차원이 크며 흡연을 통해서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 관리, 금단증상 관리를 한다. 유형 IV는 니코틴에 의존되어 흡연을 원하는 차원이 크며 스트레스 관리보다는 금단증상관리를 위해서 흡연하는 측면이 크다.

#### ● 흡연유혹의 정의

이론 및 현장작업 단계에서 파악된 속성을 토대로 흡연유혹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흡연유혹은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로 자신의 의도에 반하더라도 흡연하게 하는 정신 /신체

적 의존성을 지닌 강한 열망이다. 흡연유희는 각 개인이 형성한 흡연유희의 상황적 조건에 영향을 받고, 흡연이 허용되었던 상황과 흡연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던 경험이 흡연유희 상황과 연계 된다”

## 논 의

금연중재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증진을 주요 전략으로 (Shin, Lee & Park, 2000)하며, 이에 따라 금연 중재는 흡연유희를 관리하는 방안이 전제되어 있다. 기존의 금연중재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집단 접근을 통한 중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흡연유희는 개별적인 흡연유희 상황조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로 되는 중재개념이다. 본 고에서는 본 연구결과가 간호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와 흡연유희의 속성이 일어나는 차원을 고려할 때 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 차원은 금연 중재 시 각 대상자가 갖고 있는 흡연유희를 느끼는 조건이 사정도구에 포함되어 자료수집이 이루어 져야 하고 그에 따른 중재가 이루어 져야 함을 본 연구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힘든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는 차원은 금연중재가 반드시 흡연 외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대처전략 탐구가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하고, 니코틴 의존 차원은 금기가 아니라면 니코틴 의존여부에 따라 니코틴 대체요법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화된 습관적 열망 차원은 일상속에서 습관화된 흡연유희를 인식하고 제어하는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제력 부족 차원은 개인의 성향 역시 중재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흡연중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흡연과 재흡연 상황의 관계, 스트레스와 흡연(Bliss, Garvey & Heinold, 1989), 흡연과 니코틴의존(Joan, 1998), 흡연과 탐닉(Carter & Tiffany, 1999), 그리고 정서상태에 따른 재흡연(O'Connell, Gerkovich & Cook, 1995)에 대한 것으로, 흡연의 중독성에 관여되는 측면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중재는 흡연유희를 극복할 수 있는 좀더 포괄적이면서도 개인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수행상의 제약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중재를 구성해야 할 때는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흡연유희 유형별 접근은 집단이지만 개인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중재가 될 수 있다. 또한 흡연유희의 차원과 더불어 제시된 속성에서 흡연유희가 갖는 대인 관계적 특성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금연운동을 전개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군생활이 의무로 되어 있고, 대인관계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인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의 경우 흡연율이 73%인 점(Nam et al, 1998)은 흡연을 수용하는 사회 환경

적 요소가 흡연이 습관화되는데 기여요소가 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흡연과 관련된 인지적 경험에 대한 연구(Fallon, 1998)에서 흡연자가 흡연 할 때 경험한 긍정적 측면이 인지적 기전을 형성하여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보고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장작업단계에서 구체화 된 흡연자가 흡연에 대해 갖는 긍정적 측면은 힘든 현실로부터의 거리를 뚫으로 연계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삶의 여유였고, 이는 간호현장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좀더 현실적인 흡연유희 제어방안을 상담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혼종모형을 통한 개념개발의 기여점 중 하나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념의 덩어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Schwartz-Barcott & Kim, 1993). 본 연구결과 흡연유희의 하부 개념으로 흡연에 대한 의존, 열망, 탐닉 그리고 탐닉과 더불어 습관에 대한 개념이 흡연유희와 더불어 설명된 점은 본 연구결과가 갖는 기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결 론

본 연구는 금연관리에 중심 관리영역으로 흡연유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문에서 간과되어온 흡연유희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립을 위해 흡연유희의 속성과 차원을 파악하여 정의를 내리고 이와 연관된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개발을 시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흡연유희의 속성은 1) 개인에 따라 다양한 흡연유희의 발생 이유, 2) 심리적으로 흡연하고 싶은 끌리는 열망, 3)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욕구, 4)의지에 반하더라도 흡연하게 하는 열망, 5) 개인이 형성한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근거해서 점화, 6) 흡연을 허용하는 상황이 흡연유희상황으로 전이, 7) 흡연과 연계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인지적 경험으로 습관화, 8)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었으며 1)흡연유희의 차원은 1) 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반응 차원, 2) 힘든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는 차원, 3) 니코틴 의존 차원, 4) 일상화된 습관 차원, 5) 통제력 부족 차원이었으며 최종분석을 통한 흡연유희의 정의는 “흡연유희는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로 자신의 의도에 반하더라도 흡연하게 하는 정신/신체적 의존성을 지닌 강한 열망이다. 흡연유희는 각 개인이 형성한 흡연유희 상황 조건에 영향을 받고, 흡연이 허용되었던 상황과 흡연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던 경험이 흡연유희 상황과 연계 된다” 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흡연유희의 속성을 반영한 좀더 흡연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금연중재

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로 됨을 제안하며 아울러 금연 중재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본연구의 흡연유혹 개념분석을 토대로 한 흡연유혹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References

- Ashp(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Report (1999). ASHP therapeutic position statement on smoking cessation. *Am J Health-Syst Pharm*, 56(5), 460-464.
- Baer, J. S, Kamarck, T., Lichtenstein, E., & Ransom, C. C. Jr. (1989). Prediction of smoking relapse: Analyses of temptations and transgressions after initial cessation. *J Consult Clini Psychol*, 57(5), 623-627.
- Bliss, R. E., Garvey, R. J., & Heinold, J. W. (1989). The Influence of situation and coping on relapse crisis outcomes after smoking cessation. *J Consult Clini Psychol*, 57(3), 443-449.
- Carter, B. L., & Tiffany, S. T. (1999). Meta-analysis of cue-reactivity in addiction research. *Addict*, 94(3), 327-340.
- Chang, S. O & Park, C. S.(2001). Analysis of smoking temptation, nicotine dependency, perceived health status corresponding to stage of change. *J Korean Acad Fund Nurs*, 8(1), 69-80.
- Gilberto G, & Zaimovic, A. (2002). Exploring the bi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substance use and psychiatric disorders. *Curr Opinion in Psychiatry*, 15(3), 269-275.
- Fallon, B. M. (1998). To smoke or not to smoke: The role of sch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Cognitive Ther Res*, 22(5), 517-530.
- Flay, B. R. (1993). Youth tobacco use: Risk, pattern and control, In CDC(Center for diseasecontrol)(1994)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ng peopl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Hall, S. M., Munoz, R. F., Reus, V. I., & Sees, K. L. (1993). Nicotine, negative affect, and depression. *J Consulting Clini Psychol*, 61(5), 761-767.
- Han Gul Academy (1999). *Great Korean encyclopedia*. Seoul: Eumungak.
- Joan, S. (1998). Nicotine withdrawal. *J Am Med Assoc*, 279(23), 1857.
- Kim, H. O. (2002). Effect of a smoking cessation program on the stop-smoking rate and nicotine dependency for the adult smoker. *J Korean Community Nurs*, 13(1), 5-16.
- Kouimtsidis, C. (2000). Role of craving in substance misuse. *Curr Opinion in Psychiatry*, 13(3), 299-303.
- Lee, H. S. (1999). *Great Korean encyclopedia*. Seoul: Minjungshlim.
- Lindell, K. O, Reinke, L. F. (1999). Nursing strategies for smoking cessation. *Heart Lung*, 28(4), 295-302.
- Nam, J. J., Yoon, K. J., Gye, H. B., Lee, S. H., Kim, H. R., Choi, E. J., Suh, M. K., Kim, Y. S. (1998). *A descriptive survey on the health practice of citizens in Seoul, Korea*,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 Meyer, R. E. (2000). Craving: What can be done to bring the insights of neuroscience, behavioral science and clinical science into synchrony. *Addict*, 95, S219-S227.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2000 yearbook of health & welfare statistics*.
- National Korean Research Institute (1999). *Standard great Korean encyclopedia*. Seoul: Dusan Dong A.
- O'Connell, K. A., Gerkovich, M. M., Cook, M. R. (1995). Reversal theory's mastery and sympathy states in smoking cessation. *Image J Nurs Sch*, 27(4), 311-316.
- Page, R. M. (1989). Shyness as a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use. *J School Health*, 59(10), 432-435.
- Sayette, M. A., Shiffman, S. Tiffany, S. T. Niaura, R. S. Martin, C. S., & Shadel W. G. (2000).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craving research -The measurement of drug craving-. *Addict*, 95, S198-S210.
- Schatzman, L., & Strauss, A. L. (1973). *Field research: Strategies for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Schwartz-Barcotte, D., & Kim, H. S. (1993). An expansion and elaboration of the hybrid model of concept development, In B. L., Rodgers & K. A. Knafl (Ed),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pp. 107-133).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 Shin, S. R., Lee, D. S., & Park, J. W. (2000). The effect of life smoking cessation program-multidisciplinary approach, *J Korean Acad Nurs*, 30(1), 110-121.
- Summer, D. (1995).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3rd ed.) Burnt. Mill, Harlow: Longman Group Ltd.
- Toneatto, T. (1999). A metacognitive analysis of craving: Implications for treatment. *J Clini Psychol*, 55(5), 527-537.
- Velicer, W. F., DiClemente, C. C., Rossi, J. S., & Prochaska, J. O. (1990). Relapse situation and self-efficacy: An integrative model. *Addict Behav*, 15, 271-283.
- Walker, L. D., Avant, K. C. (199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3rd ed., Norwalk, CT: Appletion & Lange
- West, R. J., Hajek, P., & Belcher, M. (1989). Severity of withdrawal symptoms as a predictor of outcome of an attempt to quit smoking. *Psychol Med*, 19, 981-985.

# The Concept Development of Smoking Temptation

Chang, Sung-Ok<sup>1)</sup>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Purpose:** Smoking temptation is communicated frequently among people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and has specific meanings within the context of smoking. However, the concept of smoking temptation has not been well articulated in the literatur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and to conceptualize the phenomena of smoking temptation. **Method:** The Hybrid Model of concept development was applied to develop a concept of smoking temptation, which included a field study carried out in Seoul, South Korea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5 adult smokers. **Result:** The concept of smoking temptation emerged as a complex phenomenon having meanings in several different dimensions which encompassed several attributes. In addition, the conceptual structure of smoking temptation centered around five dimensions: Response to conditioned stimuli, Distancing from harsh reality, Nicotine dependency, Habitual routine, and Lack of control. **Conclusion:** Smoking temptation is a concept that needs to be treated in a specified individual way and it is possible to enrich the meanings and methods to manage smoking temptation in nursing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s that its application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patients' well being.

Key words : Smoking

\* This work is support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2-003-E0017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ng, Sung-Ok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26-1, 5-ka, Anam-dong, Sungbuk-ku, Seoul 136-701, Korea  
Tel: +82-2-3290-4918 Fax: +82-2-927-4676 E-mail: sungok@korea.ac.kr